사흘간 주가 39% ‘쑥’… 똘똘한 자회사 둔 기업 ‘함박웃음’

〈한화〉

한화 한화에어로·솔루션·비전 지분가치 급증에 깜작실적 시현 목표가 4.3만원→5.2만원 올라

LS 올해들어 주가 36%나 급등 LS전선 수주잔고 증가 등 반영

한진칼 등급전망 ‘긍정적’ 상향 대한항공의 재무안전성 등 영향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특별한 공시가 없었는데 주가가 사흘간 39%나 올랐네요.” (한화그룹 관계자)

13일 서울 증시에서 한화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화는 11.80% 오른 4만2150원에 마감하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한화의 올해 주가 수익률도 56.69%를 기록했다. SK, LG 등 10대 상장 지주사 가운데 상승률 1위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가 부각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화가 보유 중인 3개 상장 자회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비전)의 지분 가치는 최근 급증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화는 지난해 4분기 매출 약 18조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시현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 등 연결자회사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 별도 부문에서도 건설 부문 실적이 일회성 이익 반영으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반영한 목표주가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20%가량 올려잡았다.

똘똘 자회사를 둔 대기업 지주사나 어머니 기업들이 웃고 있다. 지주사들이 보유한 자회사에는 미래 성장성이 밝은 빅테크,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 바이오, 자율주행 등 대표 주자들이 많은데 최근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 자회사 덕에 신용등급이 오른 곳도 있다.

◆효자 자회사 덕에 ‘웃는’ 기업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S는 올해 주가가 36% 넘게 올랐다. 잘 짜인 자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덕분이다. LS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었다. 영업이익은 2966억원으로 93.0% 증가했다. 시장기대치 보다 40% 가량 웃돈다. NH투자증권은 LS의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증권사 김동양 연구원은 “LS는 자회사 LS전선의 수주잔고 증가와 해저케이블 설비 미국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며 “2023년부터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 등 자회사 지분 확대를 통해 전력선 밸류체인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진칼은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됐다. 자회사 대한항공의 재무 안전성 덕분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9월 연결기준 매출액 13조4000억원, 영업이익률 12.3%를 달성했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매출의 84%를 견인할 만큼 그룹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대한항공 배당정책 및 자회사 실적 개선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한진칼의 배당 여력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명암 엇갈리는 지주사

모든 지주사나 모기업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 아니다. 신성장 사업을 펼치며 미래를 일궈가는 지주사들은 주가에 날개가 달렸지만, 실적 악화를 겪는 지주사들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 LG, 롯데지주, 포스코홀딩스, CJ 등이 대표적이다.

대신증권은 LG의 목표 주가를 9만5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낮췄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LG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다”며 “연결 자회사인 LG CNS와 디앤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화학 실적 부진으로 지분법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LG의 매출액은 1조8000억원, 영업손실은 2272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지주도 울상이다. 흥국증권은 롯데지주의 목표주가를 기존 3만2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낮췄다. 롯데케미칼 등 자회사 지분가치 하락 때문이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그룹 전반의 재무건정성 제고와 효율적 투자 집행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분위기인 만큼, 지주사 중에서도 신성장 사업이나 배당 확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카드+모바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내달 첫 선

중기부, 당초 계획보다 두달 밀려
내일부터 28일까지 기존앱 사용불가
신규앱에 자동충전 기능 도입 예정

오는 3월1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이 하나로 합쳐진다.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두달 밀렸다. 사용자들은 앞으로 통합 앱에서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통합 앱 출시 준비로 이달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기존 카드형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10일부터 20일까지 설 이벤트 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성섭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신규 통합 앱에는 상품권 충전금액 부족시 자동충전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렇게하면 가맹점에서 사려는 물품 가격이 충전한 금액보다 클 때 상품권이 아닌 카드 신용구매로 결제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앱에는 가맹점 검색 후 네비게이션 길 찾기 기능, 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 모드,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24시간 챗봇 상담 기능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카드형 상품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카드사도 우리카드를 추가, 총 9곳으로 늘었다.

김 차관은 “통합 앱에는 결제금액에 대한 음성안내, 매출 내역 및 정산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가맹점주가 디지털상품권 사용시 불편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전담 콜센터 등을 운영해 가맹 상인들이 보다 쉽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골목형상점가를 누적 600곳까지 확대해 사용처를 늘리고 이를 위해 지정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앱은 기존에 KT가 맡았던 카드형과 비즈플레이가 담당했던 모바일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통합 앱은 한국조폐공사가 운영을 맡았다. 조폐공사는 당초 1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미비 등의 이유로 출범 시기가 2개월 밀렸다.

김 차관은 “공익적, 공공성을 가진 온누리상품권 앱 통합 시기가 미뤄져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출범 시기가 지연에 대해 운영자인 조폐공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모바일 사업자였던 비즈플레이의 문제 제기도 불거졌다. 고객 데이터 이관 문제, 공공기관의 시장 진출, 하도급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대표적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관련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고 자격 요건 등 정당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됐다”면서 “제안요청서(RFP)에서 하도급은 불허하고 있는 만큼 공사의 기술력, 인력 등으로 자체 해결했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 일부는 하도급을 줬다”며 “기존 사업자의 데이터에 대해 KT로부터는 실시간에 가깝게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즈플레이로부터는 지난해 말까지 데이터는 이관이 끝났고 나머지 1~2월 데이터는 오는 20일까지 모두 넘겨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나라살림 적자 80조… 2년전 보다 67조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작년 11월 누적 총수입 542조 집계
통합재정수지 28.2조 적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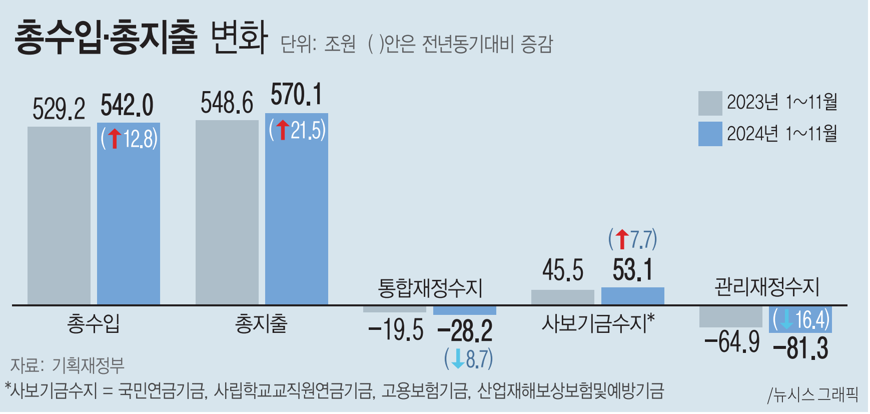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탓에 지난해 1~11월 기간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23년 말과 비교해 67조 원 넘게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누계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8조7000억 원 증가한 542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21조5000억 원 증가한 570조 1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 1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라살림 적자가 80조 원을 넘긴 것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조5000억 원 줄었다.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와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2023년에 비해 무려 17조 9000억 원 덜 걷혔다. 또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관세 수입이 5000억 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중심으로 1조6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증가와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에 힘입어 8조5000억 원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교통세는 5000억 원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1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서 계속

2년 누적 수익률 12.8% 기금형 도입목소리 커져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야”

금융당국의 수익률 제고 방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기금형과 계약형을 구분된다.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30인 이하 사업장) 외에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된다. 계약형은 가입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처를 선택한다. 반면, 기금형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사용자, 근로자 대표,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의 2년간 누적 수익률은 12.8% 수준이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2.35%)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출범 이후 2년여 만에 누적 수입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수익률도 7%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적립액을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투자 활성화 측면과 2%대의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초 내지는 상반기에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